

삼성·LG 특수 배곤 '일감 절벽'

중전기 업계, 고정비 감축 등 비용절감 자구안 마련 고심

변압기와 개폐기 등 올해 중전기 민수시장은 일부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따른 특수를 제외하곤 '일감 절벽'의 그늘이 짙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올해 중전기 업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반도체·LCD대기업의 설비투자로 인한 반짝 수혜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일감 자체가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계는 고정비 감축 등 내부에서 비용을 절감하는 자구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공인검수면제 실적 작년보다 감소=민수시장 수요를 가능하는 간접 지표인 공인검수시험 면제실적이나 V체크 인증 실적 등은 올해 역대 최저치 수준이다.

전기진흥회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 변압기와 차단기, 개폐기 등 8개 공인검수시험 면제대상 품목의 면제실적은 총 14만 38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118대보다 6.7% 감소한 수치다.

전기조합이나 전기연구원, 전기안전공사의 KAS-V체크마크 인증실적도 예년 수준이거나 감소하는 추세다.

더구나 관수 조달시장이 지난해와 비교해 최소 10% 정도 줄었다는 게 대다수

업체들의 지적이라 민수 수요 위축은 더욱 뼈아프다. 한편 시장도 진입업체가 계속 늘어나 개별 기업이 낙찰받는 단가입찰 물량은 작아지는 추세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가 조사한 전기장비 업종의 평균가동률은 2010년~2016년까지 평균 72.8% 수준이다. 그러나 올 들어선 평균치에 못 미치는 70%대 초반에 계속 머물고 있다. 지난 10월 평균가동률은 71.9%다.

▲삼성·LG 투자 수혜는 일부 업체만=올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건설사업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대기업의 설비투자는 중전기 업계에 '가뭄 속 단비'로 작용했다.

다만 변압기는 효성, 현대일렉트릭, LS산전, ABB코리아 등 4개 기업, 배전반은 5~6개 중소기업 등 소수 업체에 국한된 이벤트여서 전체적인 수요를 견인할 만한 요인은 되지 못했다.

2조원 이상 시설투자를 늘린 SK하이닉스나 LG디스플레이도 전력기자재 협력업체는 손에 꼽는 수준이다.

다만 공인검수시험 면제대상이 아닌 전선이나 배전반, 발전기 등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업황이 나은 편이다.

배전반은 대기업 OEM 물량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일감 걱정이 덜 한 편이

고 발전기도 용량 확대와 전산센터 중심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변압기 대기업도 IT 대기업의 설비투자 덕에 중소기업과 달리 괜찮은 편이다. 변압기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LG 납품 물량 덕분에 지난해보다 약 20% 정도 매출이 확대됐다"며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와 LCD 설비투자 수혜를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중전기 수요가 살아나려면 전방산업인 건설경기가 먼저 회복돼야 하지만, 아직은 요원한 모양새다.

1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금리인상의 여파로 3개월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CBSI는 78.2로 전월 대비 1.3P 하락했다.

4개월 연속 70선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4년 4~7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전기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사업계획을 설계하는 시점이지만, 시장 수요의 회복 시점을 잡는 게 어려워 답답하다"면서 "신규투자는 고사하고 현재로서는 줄일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자구안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2017 전기사랑 사진공모전 전기사랑상 수상작
어르신들의 눈이 되어주는 전기2

컴컴한 어둠 속에 작은 빛 한줄기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듯이 한밤중에 가족들을 위해 늦게까지 일하시는 우리네 어머니에게 작은 등불 하나를 보다 편히 일하도록 돕는 눈이 된다. 등불 사이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은 삶의 애환과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 글=정형석 기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선 급물살

조환익 한전 사장 8일 퇴임...에너지 공공기관 대부분 교체 작업 착수

좀체 속도가 붙지 않던 공공기관장 인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산업부와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공모를 시작했다. 전기안전공사 사장에게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 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한전원자력연료도 정상봉 전 한전 KDN 본부장이 7일 주총을 통해 사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반면 비슷한 기간에 공모절차를 시작한 한국가스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은 인사검증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장 선인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각각 정승일 전 산업부 에너지지원실장과 김동욱 전 석탄공사 노조위원장이 유력하지만, 막판 변수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전력기술의 경우 최종 5배수로 후보를 추린 가운데 4명은 내부출신이고, 1명은 원자력안전기술원 출신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전KDN도 최종 5배수로 후보가 추려진 가운데 한전 현직 임원인 P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역시 현재 5명을 추려 산업부에 추천한 상태다. 발전사들도 차례로 공모를 시작했다. 한국동서발전이 가장 먼저인 지난 11월 29일 공모 절차에 들어가 8일까지 접수

를 받았다. 한국남동발전도 4일 접수를 시작해 13일 마감한다. 한국남부발전 역시 6일부터 15일까지 사장 공모를 접수하며, 한국중부발전과 서부발전도 12일쯤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

전력거래소도 13일 이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전력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조환익 사장이 11월 중순 사표를 제출한 후 6일 사표가 수리돼 8일 이임식을 가졌다.

▶2면에 계속
정형석 기자 azar76@



전선업계, 또 민간입찰 담합

공정위, 7개 제조사 과징금 161억·검찰 고발 등 처벌

연초 SK·GS건설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전선업계가 다시 한번 민간기업 입찰 담합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선업계는 이번 건과 관련 이미 수년 전 제보된 내용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일찍부터 진행돼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관련기사 1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 3개 민간기업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고

압전선 구매 입찰의 담합 혐의로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 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전선 제조사에게 시행명령과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지난 1월 발표된 SK·GS건설 건과 동일하게 민간입찰을 대상으로 한 부당행위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지난 수년간 적발된 전선업계 입찰 담

합 사건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상대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선업계는 공공연한 비밀인 A사 대표의 담합 제보 이후 조사가 진행된 사건 중 공공기관·공기업 담합은 대부분 제재 처벌을 받았고, 민간기업 담합 사건이 아직도 다수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7개 전선 제조사들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가 진행한 37건의 고압전선 등의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 낙찰된 물량의 배분에 대해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낙찰 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

화연락 등의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 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 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7개 전선 제조사들은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투찰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된 내용을 실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등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총 16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면에 계속
김병일 기자 kube@

JE (주)JK 알에스티



2017 해외 워크샵(태국 파타야)

www.jkrst.com

JK알에스티의 열정으로 한 발 더 앞서가겠습니다.

최상의 기술력, 최고의 품질, 최저의 가격으로 빠른 견적과 정확한 납기를 위해 매진해 온 JK알에스티. 그 뒤에는 임직원 모두의 열정이 있었기에 그 믿음과 정성을 소중히 하며 더 크게 도약하겠습니다.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장치 전문업체



JE (주)JK 알에스티

본사 및 공장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달2로 24(생곡동)
TEL : 051-832-0533 FAX : 051-832-0538